

석굴암에 대한 새로운 미학적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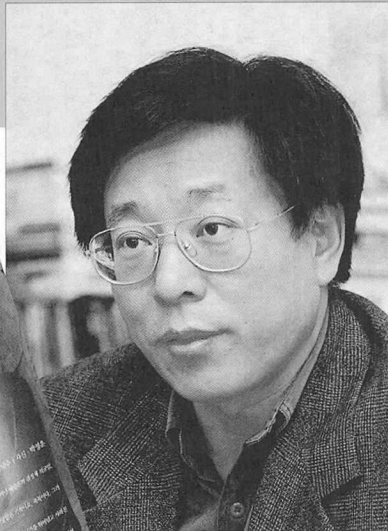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 펴낸 성낙주씨

석굴암에 대한 기존 학계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책이 나왔다. 20여년간 석굴암을 연구한 성낙주씨는 석굴암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워낙 도전적인 주장이 많아 앞으로 이 책을 둘러싼 논쟁이 학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석굴암에 대한 기존 학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책이 나왔다. 문화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고 20여년간 석굴암을 연구한 성낙주씨(45, 노원중학교 교사)가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개마고원)을 펴내 학계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미 계간지 《인물과 사상》에 기고한 〈석굴암에 대한 변명〉 등에서 '도발적'인 주장을 펼쳐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석굴암을 가리켜 우리 건축예술의 백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총체적으로 석굴암 읽기를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고, 있어도 잘못 해석했거나 빈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는 문헌자료와 직관적 상상력을 동원해 석굴암을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석굴암의 창건 동기부터 석굴암의 구조, 개별 조각상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기존 학설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미학적 읽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의 독창적이면서 도전적인 해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석굴암 창건동기다. 그는 석굴암을 호국불교의 상징물이자 화엄사상에 입각해 왕실에서 지은 것



성낙주씨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
개마고원/A5변형/256면/12,000원

으로 규정한 학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김대성 설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그는 석굴암을 김대성 개인이 만든 것으로 규정하고, 석굴암의 성격도 원효의 참회 및 화쟁사상에서 그 미학적 뿌리를 찾고 있다.

“석굴암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는데 화엄사상에 따른 호국불교의 상징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더욱이 왕실에서 짓다니요. 왕실에서 지었다면 기록이 없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동형 지붕에 대한 해석도 남다르다. 그는 동형 지붕은 비단길에서 만난 동서양의 건축과 조각이 석굴암에 이르러 정점을 이뤘다고 설명한다. 즉, 로마 판테온 신전에서 볼 수 있는 동형 지붕 양식이 비단길을 따라 경주에 흘러들었다는 것이다. 천개석을 이용한 것도 석굴암 주변이 화강암반이기 때문이라 본다. 굴을 파는 것보다 절개한 돌을 이용해 지붕을 만드는 것이 편리해 동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물증적 자료는 미비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모든 문물이 비단길을 따라 중국을 거쳐 신라로 흘러든 것을 이해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밖에도 석굴암 전실의 첨차석과 지붕돌이 불국사 자하문 석축의 첨차석과 동일하다는 학계의 주장도 달리 해석했다. 인왕상의 늘어진 허리 띠 끝자락의 모양은 금관에 매달린 곡옥의 모양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생명잉태와 번영의 상징으로 분석했다.

불교에 심취해 붓다를 소재로 한 소설 《차크라 바르틴》(살림)을 쓰기도 했던 그는 석굴암에 대한 기록이 없는 부분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해석했다. 그 가운데 '김대성이 젊은 시절 사냥 도중에 곰 한 마리를 죽여' 사찰을 지었다는 설화를 분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이 설화를 백제의 백성들(곰)을 진압(사냥)하며 죽인 것에 대한 속죄와 참회의 뜻으로 석굴암을 지어 '참회의 집'으로 삼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록이 없는 만큼 상상력을 동원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만약, 이후에 기록이 나타나 사실이 밝혀진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몇몇 학자들이 지붕을 덧씌운 콘크리트를 걷어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 만약, 콘크리트를 걷어내기 위해 압력을 가할 경우 조각상에 영향을 미쳐 원형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습기제거를 위해 '광창'을 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석굴암의 구조상 불가능하며, 거룩한 장소에 들짐승이 드나드는 것을 염려해 반대한다.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은 기존 학계의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거나 저자의 직관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이 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그는 “견해를 달리하는 누구와도 논의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석굴암에 대한 논의가 왕성하게 전개되길 기대해 본다. — 오원진 기자